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21. 12. 14.(화) 09:00 한국시각, 국제엠바고	배포일시	2021. 12. 13.(월) 16:00
담당과장	개발금융국 국제기구과장 윤정인 (044-215-8720)	담당자	박준석 사무관 junseokpark@korea.kr

아시아개발은행, '2021 아시아 경제 보충전망*' 발표

* ADB 경제전망 : (4월)연간전망, (7월)보충전망 (9월)수정전망 (12월)보충전망

- ① '21년 한국경제 **4.0%**, '22년 한국경제 **3.1%**로 **직전 전망 유지**
- ② '21년 한국 물가상승률 **2.3%**, '22년 **1.9%**로 각각 **0.3%p 상향 전망**
 → 우리 경제의 견조한 40% 전망은 **수출 호조 및 설비투자 증가**가 견인
 물가 전망 상향은 **거리두기 완화 및 유가 상승**에 기인
- ③ 아시아 경제는 '21년 **7.0%**, '22년 **5.3%**로 각각 **0.1%p 하향 전망**

[※ 요약 - '21, '22년 아시아 경제성장률 전망치 (단위: %)]

아시아 경제성장률 ^(e)	'21년 ^e			'22년 ^e		
	'21.4월	'21.9월	'21.12월	'21.4월	'21.9월	'21.12월
아시아(46개국)	7.3	7.1	7.0	5.3	5.4	5.3
동아시아	7.4	7.6	7.5	5.1	5.1	5.0
중국	8.1	8.1	8.0	5.5	5.5	5.3
한국	3.5	4.0	4.0	3.1	3.1	3.1
중양아시아	3.4	4.1	4.7	4.0	4.2	4.4
남아시아	9.5	8.8	8.6	6.6	7.0	7.0
동남아시아	4.4	3.1	3.0	5.1	5.0	5.1
태평양	1.4	△0.6	△0.6	3.8	4.8	4.7

- '21.12.14(화)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021 아시아 경제 보충전망'(Asian Development Outlook Supplement)*을 발표하였다.

* 49개 아시아 역내국 중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제외한 46개 회원국 대상

- ADB는 직전('21.9월) 전망과 비교, 아시아 46개국 경제의 '21년 성장률을 7.1%에서 7.0%로, '22년 성장률을 5.4%에서 5.3%로 각각 0.1%p 하향 조정*하였다.

* (성장률 전망 추이(%), 4→9→12월) '21년: 7.3→7.1→7.0, '22년: 5.3→5.4→5.3

-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한 전세계 확진자 수 증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이 글로벌 주요 리스크로 부각되는 가운데,
- 아시아 개도국은 상대적으로 공급망 충격을 적게 받으면서, 견조한 수출 수요와 확진자 감소로 인한 경제활동 회복의 영향으로 직전 전망 대비 성장률이 소폭(0.1%p)만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ADB는 아시아 46개국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직전 전망('21.9월 전망: '21년 2.2%, '22년 2.7%)을 소폭 수정, '21년 2.1%, '22년 2.7%로 예측했다.

- 원자재 가격 상승이 '21년 글로벌 물가 상승을 이끌었으나, 공급망 차질이 아시아 국가들의 물가상승률 상방 압력으로 전이되지 않음에 따라, 아시아 46개 회원국의 물가상승률이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예측된다고 평가했다.
- 유가*는 '21년 10월 고점을 기록한 이후 '22년 석유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면서 완만하게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 (브렌트유, USD/배럴) ('21.10월 장중 최고) 86.10 → ('22.12월 예측) 71.38

- 우리나라의 경우 '21년 성장률을 4.0%, '22년 성장률을 3.1%로 전망해 직전('21.9월) 전망을 유지*하였으며, 물가상승률은 '21년 2.3%, '22년 1.9%로 직전 전망 대비 각각 +0.3%p씩 상향 조정하였다.

* '21년 GDP 전망 추이(%) : 3.5(4월 전망) → 4.0(7·9·12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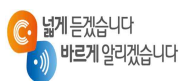
'22년 GDP 전망 추이(%) : 3.1(4월 전망) → 3.1(7·9·12월 전망)

- '21년 경제성장 전망은 견조한 수출과 설비 투자* 등으로 기존 전망을 유지하였고, 물가 전망 상향은 4분기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소비 등 일상경제 회복과 유가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 반도체 수출 확대에 의한 IT부문 성장이 민간 투자 증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 ADB는 오미크론 등 새로운 변이, 일부 지역의 낮은 백신 공급 및 백신 효과성 감소 등 코로나19 관련 위험이 여전히 역내 경제성장에 주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 중국의 예상보다 급격한 경기둔화, 글로벌 공급망 차질 장기화,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를 경기위축 요인으로 꼽았다.
- 한편, ADB는 코로나19로부터 경제가 회복되면 기상이변 및 기후변화와 관련한 중기적 위험이 주요 리스크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ADB 홈페이지(<https://www.adb.org>)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참 고

지역별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21년, '22년)

(단위: %)

구 분	GDP 성장률 ^e						물가상승률 ^e					
	'21			'22			'21			'22		
	당초 (4월)	수정 (9월)	보충 (12월)	당초 (4월)	수정 (9월)	보충 (12월)	당초 (4월)	수정 (9월)	보충 (12월)	당초 (4월)	수정 (9월)	보충 (12월)
아시아 개도국	7.3	7.1	7.0	5.3	5.4	5.3	2.3	2.2	2.1	2.7	2.7	2.7
아시아 개도국 (한국 등 제외*)	7.7	7.7	7.5	5.6	5.6	5.7	2.4	2.4	2.5	2.9	2.9	2.9
중앙아시아	3.4	4.1	4.7	4.0	4.2	4.4	6.8	7.7	8.6	6.3	6.7	7.3
카자흐스탄	3.2	3.4	3.7	3.5	3.7	3.9	6.5	6.9	7.8	6.2	6.4	6.4
동아시아	7.4	7.6	7.5	5.1	5.1	5.0	1.5	1.4	1.2	2.2	2.2	2.0
홍콩	4.6	6.2	6.4	4.5	3.4	3.4	1.3	1.5	1.5	2.0	2.0	2.0
중국	8.1	8.1	8.0	5.5	5.5	5.3	1.5	1.3	1.0	2.3	2.3	2.1
한국	3.5	4.0	4.0	3.1	3.1	3.1	1.3	2.0	2.3	1.5	1.6	1.9
대만	4.6	6.2	6.2	3.0	3.0	3.0	1.1	1.5	2.0	1.1	1.1	1.1
남아시아	9.5	8.8	8.6	6.6	7.0	7.0	5.5	5.8	5.9	5.1	5.1	5.3
인도	11.0	10.0	9.7	7.0	7.5	7.5	5.2	5.5	5.6	4.8	4.8	4.8
동남아시아	4.4	3.1	3.0	5.1	5.0	5.1	2.4	2.2	2.1	2.4	2.4	2.5
인도네시아	4.5	3.5	3.5	5.0	4.8	5.0	2.4	1.7	1.5	2.8	2.7	2.7
말레이시아	6.0	4.7	3.8	5.7	6.1	5.9	1.8	2.5	2.5	2.0	2.3	2.3
필리핀	4.5	4.5	5.1	5.5	5.5	6.0	4.1	4.1	4.4	3.5	3.5	3.7
싱가포르	6.0	6.5	6.9	4.1	4.1	4.1	1.0	1.6	2.0	1.2	1.4	1.4
태국	3.0	0.8	1.0	4.5	3.9	4.0	1.1	1.1	1.1	1.0	1.0	1.4
베트남	6.7	3.8	2.0	7.0	6.5	6.5	3.8	2.8	2.2	4.0	3.5	3.8
태평양 도서국	1.4	△0.6	△0.6	3.8	4.8	4.7	3.7	3.6	3.5	3.9	4.1	4.1

* 제외대상 : 역내 신흥 4개국(한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